

光州日報 선정 2006년 스포츠 10대 뉴스

‘피겨여왕’ 김연아 한국 첫 시니어 제패

한국 피겨 스케이팅 사상 처음으로 성인 무대를 제패한 김연아(16·군포 수리고)는 올해 때려놓은 가장 화려한 스타 중 하나다. 김연아는 지난 16일 2006~2007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진통제 투용으로 일본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코를 꺾고 우승을 일궈냈다. 지난 3월 세계 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빙상 100년의 역사를 새로 썼던 김연아는 9개월만에 시니어 무대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설기현 프리미어리그서 맹활약

한국인 3호 프리미어리그 설기현(27·레딩)은 올해 7월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레딩과 이적에 합류하며 해외진출 이후 6년간 기다려온 프리미어리그의 꿈을 이뤘다. 설기현은 지난 9월 시즌 5차전만에 데뷔골을 터뜨렸고, 2경기만인 7차전에서 2호 골을 작렬시키면서 영국 축구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잠시 주춤했던 설기현은 시즌 13차전에서 헤딩으로 3호골을 기록하면서 ‘상공시대’를 꽃피우고 있다.

박태환 AG 수영 3관왕...MVP도 차지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은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 3, 은 1, 동 3개를 따냈다. 자유형 200m와 1,500m에선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했고, 아시안게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도 차지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부터 시작된 아시안게임 MVP에서 한국 선수가 뽑힌 것은 박태환이 처음이다. 17세 소년인 박태환은 수영 영웅 그랜드 해켓(호주)을 뛰어넘을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줄 후보 0순위다.



신지애 KPGA 여왕 등극

한평골프고의 신지애는 올해 KPGA 여왕으로 등극했다. 지난 7일 KPGA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신인왕, 다승왕, 상급왕,최저타수상 등 사상 첫 3관왕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평균 270야드를 뒤흔드는 장타를 자랑하는 신지애는 국내 남녀 골프를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시즌 상급 3억원을 돌파했고, KPGA 최초로 시즌 평균 60대 타수를 기록했다. 3년전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은 아픔을 견뎌낸 신지애는 시즌이 끝난 후에는 ‘꼬마 천사’로 변신, 불우이웃들에게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FA컵 우승

전남드래곤즈는 올해 프로·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FA컵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은 수원과의 FA컵 결승전서 송정현, 김태수의 골로 2-0으로 승리, 지난 1997년 FA컵 우승 이후 9년만에 정상에 올라섰다. 이로써 전남은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전남은 내년 3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 2007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F조에 편성돼 일본가와사키 프론타레 등과 맞붙게 된다.



승마 최정상 AG 2회 연속 2관왕

한국 승마 마장마술의 대들보인 광주 출신 최준상(28)은 지난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아시안 게임 2관왕에 올랐다. 최준상은 지난 5일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에서 71.550%의 점수를 얻어 1, 2차전 예선 및 결선 합계 68.602%로 1위를 차지했다. 최준상은 전남 단체전을 포함, 이번 대회에서 두개의 금메달을 모두 가져간 것. 2002 부산아시아게임에서도 단체, 개인전 금메달을 휩쓸었던 최준상은 2개 대회 연속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의 최강자로 우뚝서게 됐다.

KIA 타이거즈 포스트시즌 진출

지난해 최하위의 수모를 겪은 KIA는 올 시즌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명가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서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KIA는 투·타에서 짜임새를 갖춰가며 한기주, 윤석민, 이용규 등 젊은 피를 주축으로 1년 만에 최하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국내 프로야구 25년 역사에서 ‘플레이’가 곧바로 4강에 진입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일이다. 존플레이오프에서 ‘속적’ 환화에 달미를 잡힌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야구 WBC 4강 신화

한국 야구는 지난 3월 사상 첫 국가대표전 형태도 펼쳐진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진출 쾌거를 일궈내며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다만, 중국, 일본, 멕시코, 미국, 그리고 또 일본을 꺾고 4강에 가장 먼저 안착한 한국은 일본에 두 번을 이기고도 추위 추의 불합리한 경기 규칙 때문에 결국 4강 재대결을 벌인 일본에 0-6으로 완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한국최초낸 대표팀도 지난 9월 쿠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6년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다.

‘아시아 거포’ 이승엽 日 열도 흔들다

일본프로야구 진출 3년째를 맞은 이승엽(30)은 올해 ‘아시아 거포’ 명성에 걸맞게 흥남 열풍을 일으키며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확고 부동한 4번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승엽은 올 시즌 홈런 41개 등 타율 0.323, 108타점, 101득점하며 센트럴리그에서 홈런·타율 각 2위와 타점 4위에 올랐다. 지난 2003년 국내 프로야구 삼상에서 아시아 홈런신기록(56개)을 세운 뒤 롯데 마린스와 계약해 2년간 고생한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었다. 이승엽은 올 시즌 마감 후 연봉 955만달러에 포함된 4년 장기계약 대박을 터뜨렸다.



한국 독일월드컵 16강 탈락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축구대표팀은 2006 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의 험난한 벽을 뚫지 못한 채 16강 진출의 고비에서 고배를 마셨다. 월드컵 6회 연속 본선진출에 성공한 태극전사들은 2회 연속 16강 진출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기약하며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아드보카트호는 월드컵 원정 도전자에서 무려 52년만에 이뤄낸 감격스런 첫 승리를 비롯해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프랑스와 대등한 경기 끝에 1-1 무승부를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도 이뤘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won' (천원) area, featuring 'Cheonwon' (천원) and 'Cheonwon' (천원)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won' (천원) area, featuring 'Cheonwon' (천원) and 'Cheonwon' (천원)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won' (천원) area, featuring 'Cheonwon' (천원) and 'Cheonwon' (천원)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won' (천원) area, featuring 'Cheonwon' (천원) and 'Cheonwon' (천원)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won' (천원) area, featuring 'Cheonwon' (천원) and 'Cheonwon' (천원)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won' (천원) area, featuring 'Cheonwon' (천원) and 'Cheonwon' (천원) projects.